프로젝트 업무 일지

## 엔티티

공백 &nbsp;

: &#58;

- &#45;

> &gt;

## 참고웹페이지

<http://boat-studio.shop/>

<https://www.ekara.org/>

<http://www.greenfund.org/>

<https://so-je.com/>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jsessionid=wVbrQOo1pUrJ9EsHu8fQqsaCVgtW6cvnayaYxlszsz4NVZAGbmbH2xulkKJMa0dv.cpawas_servlet_engine1?pageNo=1_1_2_0&ccbaCpno=1273600550000>

https://poclanos.com/featured/%ec%83%88%eb%a1%9c%ec%9a%b4-%ec%84%b8%eb%a0%a8%ec%9d%84-%ec%b0%be%ec%95%84%ec%84%9c-g1nger-%ec%b5%9c%eb%82%99%ed%83%80-charming-lips/

참고문헌웹

1.문화유산채널

<http://www.k-heritage.tv/brd/board/256/L/CATEGORY/614/menu/253?brdCodeField=CATEGORY&brdCodeValue=614&bbIdx=5334&brdType=R&tab>=

2.성동구문화관광

https://www.sd.go.kr/tour/contents.do?key=1986

## 2023.01.12

소목장

- 폰트찾기

- 슬라이드 이미지

- index / header / slideshow / main / footer

- main – 보도자료, 공지사항(게시판), 영상링크

- header menu

소개

전시

공지사항

연락

- database

Members

Boards

News

exhibition

## 2023.01.13

로그인 //로그아웃 // 회원정보수정

컨셉 더 확실히 하기

* **컨셉은 개인가구 공방**
* 작가 소개
* 작품 모음집 or 전시
* 게시판 (공지) : 메인에는 admin이 작성한 게시물만 / 게시판에도 admin이 작성한걸 맨위로… 될까?
* 연락 (가능하다면 지도)
* (가능하다면) 주문 폼

연락(명함)

묻고답하기(관리자가 올린것만 메인페이지 공지 사항으로)

-Font 정리 미치겠다.

-회원가입, 로그인 폼 정리(색깔…)

-게시판 댓글 정리

-로그인 회원정보수정 엔터키

-목재 확대 이미지 이미지바 헤더 밑에

-반응형 헤더 두껍게 메뉴는 column으로

**소목장-맞춤의 미학, 무르익는 모순덩어리**

소목장(小木匠)은 나무로 전통생활가구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장인이다. 주로 궁궐 사찰 주택 등 큰 건축물을 짓는 장인은 대목장(大木匠)이라 한다. 소목장은 기후 자연환경 목재의 채취에 따라 살림공간과 가옥구조에 알맞게 생활가구를 제작한다. 소목가구들은 옷가지를 넣는 농과 옷걸이장, 책을 쌓아두는 책장, 선비들이 공부하는데 사용되는 문방구류, 의식주에 필요한 생활품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생활가구 기록은 고구려 고분벽화인 무용총(舞踊塚)과 안악고분(安岳古墳) 등에서 나타난다. 백제시대 때는 무녕왕릉에서 발굴된 두침과 족좌 등이 있으며, 신라시대는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생활용품의 목각 등이 있다. 고려시대에는 <고려사> 식화지(食貨志) 중상서(中尙書) 조를 보면 소목장 나전장 등의 명장이 있어 이미 전업으로 국가기관에서도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사대부 귀족들의 사랑방 꾸미기로 기품 있는 생활가구가 이들의 전횡물이 되면서 가구공예는 크게 발달했으나 이를 만드는 장인들은 천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소목장이라는 명칭은 고려시대 때부터 나타나며, 조선시대에는 목장(木匠)이라고 하였으나 대목과는 구분하였던 것 같다. 조선 전기까지는 목가구가 주로 왕실과 상류계층을 위해 제작되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민간에 널리 보급되고 종류도 많아져 지역적인 특성이 현저히 나타나게 되었다.

조선시대 목공예들은 주로 서울과 호남평야지대, 평양지방에서 발달했으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는 경남 충무지방에서 소목장 기술이 발달되어 지금까지 ‘충무 민장롱’이란 하며 널리 이름이 나게 된다.

예를 들면 남도(南道)지역의 경우 나무의 무늬를 귀하게 여겨 옻칠을 하지 않은 민장롱을 주로 제작하였는데, 통영지역이 대표적인 예이다.  
전남 화순 동복(同福)의 장(欌)은 문양과 옻칠·장식 등을 모두 겸비하고 있고, 먹감나무를 쓰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듯 소목가구는 대체로 원목을 사용하여 목재가 지닌 나무결을 최대로 살려서 자연미를 추구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러므로 소목가구는 전통가구의 형태와 규격·기법·문양을 근거로 제작되었다.

**제1대 중요무형문화재 소목장 천상원 선생**

고 천상원 선생 일가는 충무에서 여러 대를 이어 소목장으로 일해 자연스레 ‘장인 대가’를 이뤘다. 1975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으로 지정된 천상원 선생은 집안 내림에 따라 이 길로 접어든다. 경남 통영시 문화동에 있는 수십 년째 살아온 누옥에서 천 선생이 소학교 시절 열 살 때 처음 소목일 접한다. 아버지 천철동 선생에게 어깨너머로 보면서 톱과 대패를 잡기 시작해 열네 살 되던 해 공방에 눌러 앉았다. 선친 밑에서 10여 년 간 소목장으로 성장해 가던 대에 태평양전쟁이 터져 징용을 피할 겸 목수일도 더 배울 겸 경남 진해에 있던 군수용 목공장 공원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 곳 생활은 예술의지나 장인정신을 확장하는 장인의 길이 아니라 표준화된 군용 책상 따위나 만드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기능공으로서 직장일 뿐이었다. 정교하면서도 우아한 조형성을 갖춘 조선목가구를 만들겠다는 장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그런 감옥 같은 공원생활도 ‘8․15 해방’과 함께 해방되었다. 그러나 곧이어 터진 한국전쟁과 휴전 뒤 불어 닥친 산업화 물결은 그에겐 진정한 해방이 아니었다. 주린 배를 채우기 어려운 시절, 고가의 목가구를 찾는 사람은 없었다. 전승기반이 무너져 가는 흐름이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전통공예전승을 위한 정부정책이 세워지고 전통공예에 대한 관심이 고개를 들면서 전국전승공예전에서 만들어지고, 1969년 부친이 큰 상을 받으면서 이 일에만 매달려 아버지가 작고한 1975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고 천상원 선생이 장기를 보인 작품은 좌경 문갑 사방탁자 이층장 삼층장이었다. 그의 특기는 먹감나무 은행나무 개옻나무 등 무늬 결이 아름다운 판재에 뇌문을 박은 다음 얇게 켜서 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뇌문 박은 통영 목가구 전통은 그의 제자 김금철 선생이 배우기 시작하여 1977년 전수장학생, 1982년 소목장 전수교육조교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